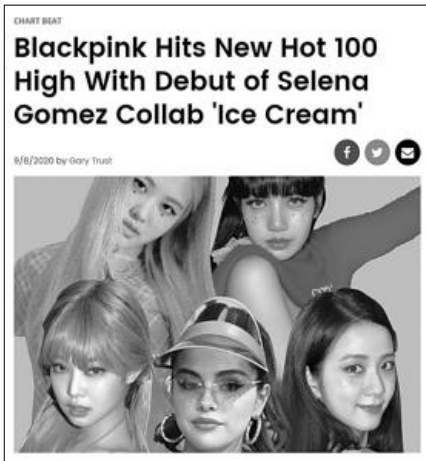


블랙핑크, BTS와 K팝 쌍끝이 '아이스크림' 빌보드 싱글 13위로 데뷔

걸그룹 블랙핑크가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작업한 신곡 '아이스크림' (Ice Cream)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3위에 올랐다.

9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빌보드는 전날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이 '핫 100' 차트에 13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랙핑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지난 7월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 (How You Like That)은 빌보드 싱글 33위로 진입했고, 6월 팝스타 레디디 가가와 협업한 '사워 캔디' (Sour Candy)도 33위로 데뷔한 적이 있다.

특히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빌보드 싱글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걸



▲ '아이스크림'의 '핫100' 차트 진입을 소개한 빌보드. 사진=billboard.com 화면 캡처

그룹 블랙핑크도 상위권에 올라 두 그룹이 미국 내 K팝의 위상과 인기를 쌍끝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빌보드에 따르면 블랙핑크 '아이스크림'은 발매 첫 주 스트리밍 1천830만회, 음원 다운로드 2만3천회를 기록했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들은 라디오 방송 청취자는 510만 명으로 집계됐다.

빌보드는 " '아이스크림' 이 라디오 방송 차트에서 32위로 처음 진입했다." 고도 전했다.

'아이스크림'은 가벼운 댄스 팝 장르 곡으로, 피쳐링에 참여한 고메즈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영어로 대부분의 가사를 소화했다. 한국어 가사는 곡 중반부에 나오는 랩 파트가 유일하다.

한국 영화 '해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 사진=위키백과

한국 영화 '해무' (감독 심성보)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

리메이크 작업에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프로듀서를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 감독은 심성보 감독과 함께 '해무'의 각본을 공동으로 쓰고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리메이크 버전은 파티시엔트 미디어가 제작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의 매트 팔머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는다.

2014년 개봉한 '해무'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여섯 명의 선원이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서 검사를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동명의 연극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봉준호 감독은 할리우드 버전 '해무'의 참여에 대해 "파티시엔트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탐구하는 영화를 만든다."며 "새로 탄생할 '해무'에 이들과 함께하게 돼 기쁘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스틴 비버 "BTS, 역사를 만드는 사람"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을 극찬했다.

비버는 지난 7월 1분45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BTS의 음악적 성과와 성공 비결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TS"라고 전했다.



▲ 저스틴 비버. 사진=저스틴 비버 페이스북 캡처

BTS 팬으로 알려진 비버는 "BTS가 첫 번째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 발매로 기록적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유튜브 영상조회 수 등을 언급했다. 그는 "K팝 그룹이 전 세계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기록을 깨고 있다."며 "2020년은 (BTS에게) 거대한 한 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버는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

트'라는 곡이 BTS가 부른 첫 영어 싱글이라는 점도 거듭 주목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영어가 아닌 곡들은 미국 라디오 방송에 어려움을 겪었고,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경우도 거의 볼 수 없다."며 "하지만 BTS의 다른 한국어 노래와 달리 라디오 방송국들이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방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이어갔다. 이에 포브스는 8일 "방탄소년단과 팬들에게는 '핫 100' 정상 수성을 축하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난주 1위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은 사실상 대중 가수로서 '슈퍼스타'의 마지막 경계를 넘었고, 2주째 정상을 지키며 자신들의 생명력과 지속 확대되는 팬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